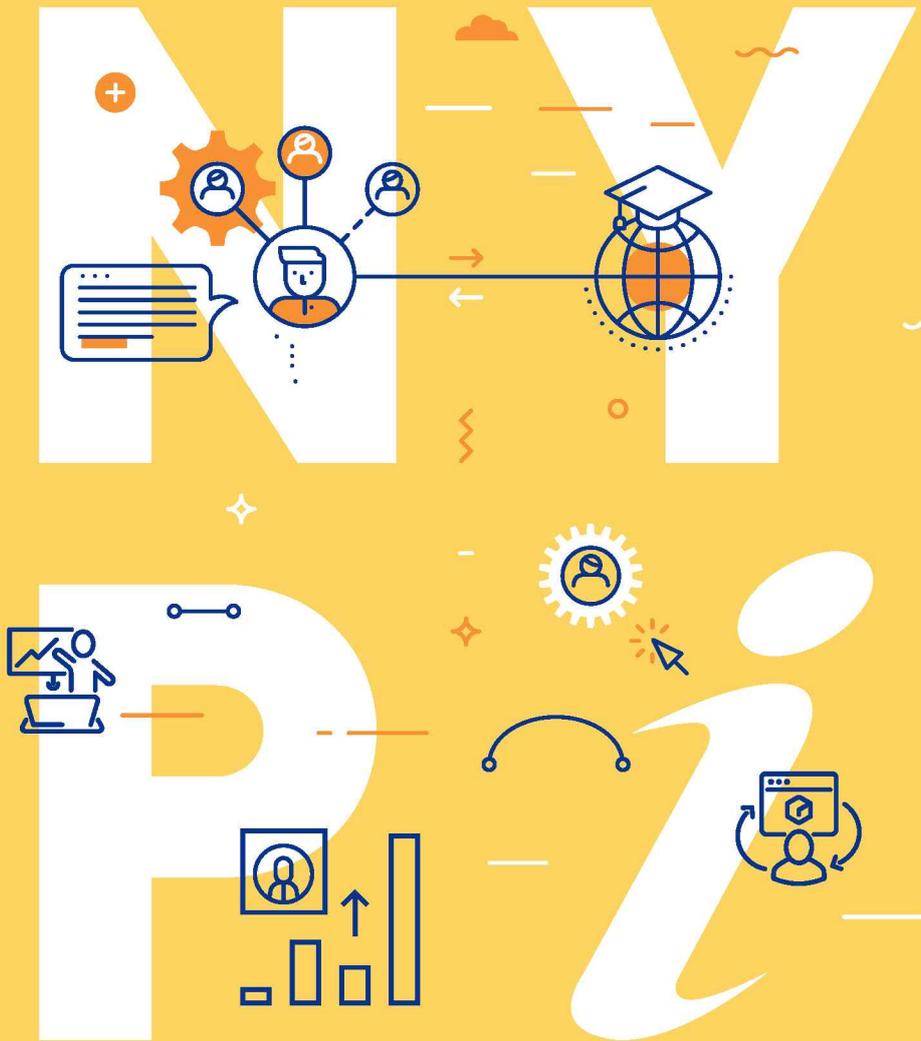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배상률



연구보고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저 자 배상률 연구위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연구보고 21-R24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II. 학교미디어교육 주요 이슈	7
1. 미디어교육 담당 부처/기관 및 미디어센터	9
2.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 현황	14
3. 초중고생 미디어교육 현황	16
III. 전문가 설문조사	21
1. 계층적 분석(AHP)	25
2.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34
3. 학교미디어교육 제반사항	40
4.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지향점	45

IV. 전문가 의견조사	55
1. IPA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58
2.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의견	65
3. 센터 유형별 중점 기능에 대한 의견	74
V. 정책제언	81
1. 기존 미디어센터와의 차별화	83
2. 기존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84
3. 센터의 운영과 평가	85
참고문헌	89
부 록	93

표 목차

표 II-1. 교육부의 협력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현황(교육부 내부자료)	10
표 II-2.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세부사업내용	11
표 II-3.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별 경험률, 관심/흥미 있는 교육, 필요/중요한 교육	17
표 II-4.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_최근 3년 이내	19
표 III-1. 전문가 조사 참여자	24
표 III-2.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5
표 III-3. 법제·정책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6
표 III-4. 거버넌스·인프라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7
표 III-5. 학교·가정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9
표 III-6. 미디어기업·단체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30
표 III-7.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	31
표 III-8.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교사 출신 집단)	32
표 III-9.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비교사 집단)	33
표 III-10.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에 미칠 정책의 파급력(중요도) 평균값	34
표 III-11.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이행수준(달성도) 평균값	36
표 III-12. 미디어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동의 수준	40
표 III-13. 미디어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동의 수준	40
표 III-14.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역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 동의 수준	41
표 III-15. 학교미디어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다 동의 수준	41

표 III-16.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장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동의 수준	42
표 III-17.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교재가 잘 갖춰져 있다 동의 수준	42
표 III-18.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장애요인(1순위) ·	43
표 III-19.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장애요인(1+2순위)	44
표 III-20.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정체성 및 지향점(평균비교)	46
표 III-21.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지역의 타 미디어(영상)센터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48
표 III-22.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지역의 타 미디어(영상)센터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49
표 III-23. 세 개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각각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학교미디어교육의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 있다	49
표 III-24. 각 센터는 해당 지자체 소속 학교 미디어교육 영역에 집중해야한다	49
표 III-25. 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50
표 III-26. 각 센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50	
표 III-27.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관 및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	50
표 III-28. 해당 지자체 소속 학생 및 교원은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51
표 III-29.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51
표 III-30.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표 III-31. 센터는 제작/창작 활동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52
표 III-32. 세 개의 센터 이외에 직속기관형 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추가 설립될 필요 있다	52
표 III-33.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 기능(1순위)	53
표 III-34.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 기능(1+2+3순위)	54
표 IV-1.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리스트	58

그림 목차

그림 Ⅱ-1. 교육부의 학교미디어교육 추진전략	10
그림 Ⅱ-2.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안내도	13
그림 Ⅲ-1.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5
그림 Ⅲ-2. 법제·정책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6
그림 Ⅲ-3. 거버넌스·인프라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8
그림 Ⅲ-4. 학교·가정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29
그림 Ⅲ-5. 미디어기업·단체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30
그림 Ⅲ-6.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정책과제 IPA(전체)	37
그림 Ⅲ-7.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정책과제 IPA(교사)	38
그림 Ⅲ-8.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정책과제 IPA(비교사)	39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디지털 공간이 건전한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학교미디어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디어교육은 교육공학적 접근의 미디어 활용 교육이 아닌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인 역량, 즉,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1)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역량, 2) 미디어를 통해 유용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3)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4)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신뢰성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 5)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참여를 통해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미디어교육에 있어 주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는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인 미리네(miline.or.kr)를 구축하고, 교수·학습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하기 위해 2020년에 지역 교육청 대상 공모를 하였다.

교육부의 2020년 시도교육청 대상 공모에 선정된 경기, 대구, 충북 지자체 교육청별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축 중이다. 지역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공모에 신청한 교육청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신청 단계에서 지역 현황과 여건이 면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한계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센터의 운영 방식, 타 지역 센터와의 연계, 핵심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운영 방향과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내용

1) 학교미디어교육 핵심 이슈

본 장에서는 교육부를 포함한 학교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부처 및 산하 기관 그리고 지역 미디어센터에 대해 살펴보고, 미디어교육 법제 현황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초중고 재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설문조사

초중등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미디어교육 학자, 미디어교

육 강사, 청소년 미디어 이용 관련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 총 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적 분석 기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매트릭스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 기능과 운영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책임자가 구축한 미디어교육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2명을 직군에 따라 선정하여 자문을 구했다. 직군은 교사직, 교수직, 센터장직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필요성부터 유형별(직속기관형과 협력기관형) 핵심 기능, 타 기관의 유사 센터들과의 관계정립 등에 대해 물었다. 본 장에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4) 정책 제언

전술한 일련의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궁극적인 기여를 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지막 장에 제시하였다.

○ — 제2장 학교미디어교육 주요 이슈

- 1. 미디어교육 담당 부처/
기관 및 미디어센터
- 2.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 현황
- 3. 초중고생 미디어교육 현황

1. 미디어교육 담당 부처/기관 및 미디어센터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교육 주관부처로서 부처 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교육부, 2019). 교육부가 설정한 학교미디어교육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②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③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④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그림 II-1〉 참조).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을 2020년 시도교육청 대상 공모를 통해 직속기관형 3곳을 선정하였다. 경기도, 충청북도, 대구 교육청이 선정되어 현재 각 지자체별로 설립 추진 중에 있다. 센터 자체 건물 설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세 곳 모두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소요되며 특교 예산은 충북과 대구가 각각 35억 원, 경기도가 70억 원 책정되었다. 직속기관형 센터와 별도로 협력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시도교육청 자율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이 역시 특교 예산이 지급된다(교육부 내부자료, 2021) (〈표 II-1〉 참조).

추진전략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② 미디어 선택과목 개설 및 인정도서 개발 지원 ③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① 민주시민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 ② 창의·융합적 사고력 키우는 미디어 교육 지원 ③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지원 ④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① 현장성을 강화하는 교원 연수 실시 ② 맞춤형 미디어 교원 연수 확대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① (가칭)미디어교육센터 설립 ② 교육부-시·도교육청·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미디어 교육 ③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

그림 II-1 교육부의 학교미디어교육 추진전략

* 출처: 교육부(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p.2

표 II-1 교육부의 협력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현황(교육부 내부자료)

시도	특교예산 (백만원)	세부 내용	대상	비고/사업기관
서울	100	교원 연수 프로그램	교원	협약 진행 중
		학생 체험 프로그램	학생	
광주	60	e-NIE 프로그램	학생, 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원	80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청소년 캠프,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 탐색 교육	학생	강릉 KBS (입찰 처리 중)
		미디어 문해력 강화 교원연수	교원	
충북	100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	교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 프로젝트 경진대회	학생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북	200	학교급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학생, 교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학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학생, 교원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학생	야호학교(전주시청)

* 출처: 교육부(2021). 시도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운영 현황(21.3.12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미디어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각종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1년 5월 기준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2007년) 강원(2014년), 대전(2014년), 인천(2014년), 서울(2015년), 울산(2016년), 경기(2019년), 충북(2020년), 세종(2020년)에 차례로 들어섰다. 또한, 2022년에 대구, 2023년에 경남 지역, 2024년에 전남과 전북 지역에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 센터들 중 최초로 설립된 부산과 광주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노무현 정부 때 전액 국비로 구축되었다. 나머지 센터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와 시설은 방통위가 구축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각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방통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체험과 장비 대여, 시설 대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시행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표 II-2>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펼친다고 평가받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세부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2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세부사업내용

사업/ 프로그램	정책대상	세부사업내용
학교 미디어교육	중·고등학생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 : 뉴스, 광고, 라디오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통한 진로탐색교육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 청소년 미디어 체험 및 방송인 진로특강 - 학부모 미디어교육 :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1인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 - 동아리 미디어교육 : 뉴스, 단편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집중제작 - 전교생 원데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 프로그램	정책대상	세부사업내용
상설 미디어교육	시민	온오프라인 병행 미디어교육(미디어온) -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유형(영상,라디오,사진 등)에 따른 제작 교육, 비정기적 특강
미소 프로젝트	장애인 노인	- 대전 지역 장애인, 노인 단체·기관 대상 - 미디어를 통한 소통 능력 향상, 사회참여, 인식개선 등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미디어 제작과 리터러시 교육 - 장애인: 특수학급, 학교,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 단체 - 노인: 노인복지관
이음 프로젝트	이주민 학교밖 청소년 여성(노인)	- 대전 지역 이주민, 학교밖청소년, 여성 단체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이주민: 이주여성·아동·부모, 영상 제작 및 비평 교육 -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대상 브이로그 제작 교육 - 여성: 은퇴 노인 여성 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씨앗별 프로젝트	유아	- 유아기 일상생활 속 놀이로 배우고 만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 -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통능력 함양
미리미리 학교	강사	- 강사풀 등록 강사 대상 미디어교육 연수 - 비정기적 운영 - 미디어 제작, 교수법, 이론, 교육 경험 나누기 - 교육 영역(교육 참여자의 문화적 특징)에 따른 워크숍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회미디어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미디어교육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미디어교육 운영학교에 강사를 지원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한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미디어교육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보급, 미디어교육 강사 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에는 서울 중구에 미디어교육원을 개관하여 2021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미디어교육 분야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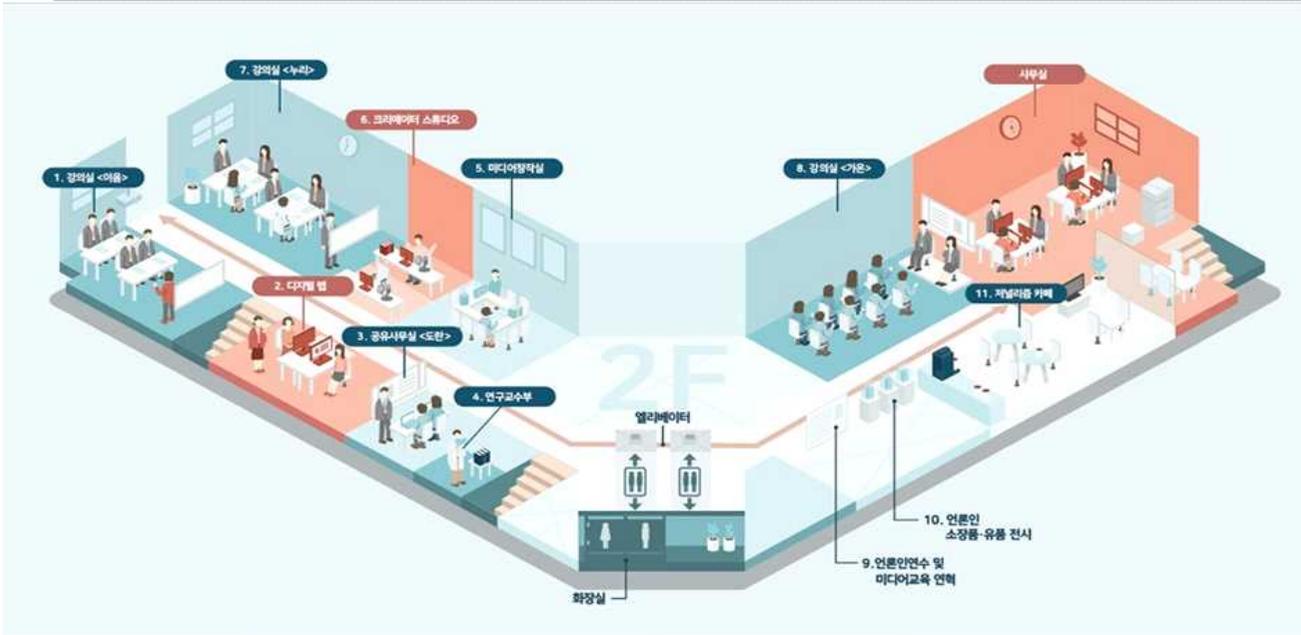


그림 II-2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안내도

* 출처: 미디어교육원. 미디어교육원 안내도, <https://www.forme.or.kr/sub.cs?m=110>에서 2021년 11월 23일 인출

미디어교육 관련 센터 기능을 하는 또 다른 곳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들 수 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운영하는 미디어엑트는 국내 최초 비영리 공공미디어센터이다. 1980년대에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공동체방송국과 미디어센터를 제도화하였는데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들어 이 같은 시민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영상제작 및 교육시설이 미미한 당시 상황에서 독립영화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미디어엑트를 중심으로 설립이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 각 지역에 들어서며 공간 및 시설 대여와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 등 각종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 미디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상술한 부처 산하 센터를 포함해 지자체 및 민간 등에서 설립한 지역 미디어 센터는 2021년 기준 52개 운영 중이다. 그 중 서울이 9개, 경기도가 8개, 경남이 5개, 강원이 4개, 인천, 충북, 충남, 전북, 대구가 각각 3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1~2개의 센터가 있다(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2021).

2.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 현황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11월 16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앞서 2020년에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건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상정될 만큼 미디어교육은 교육 현장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을 이루기 위한 국내

의 법적 기반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미디어교육 관련 각종 사업들의 추진과 시행이 탄력을 받기위해 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미디어교육의 근거 및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교육법이 마련되어야 미디어교육의 기반 구축은 물론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강진숙 외, 2017; 정순원, 2018).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시켰을 만큼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니즈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들어 부산, 전남, 광주, 서울, 인천 등 10여 개 지자체 의회들은 경쟁하듯 지자체별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있다. 이렇듯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07년 이경숙 의원이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그 동안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관련 주체들 간의 이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은 제17대 국회(2004.5~2008.5)의 이경숙 의원 안을 시작으로 19대 국회(2012.5~2016.5), 20대 국회(2016.5~2020.5), 21대 국회(2021.5~현재)에서 각각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미디어교육의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소관 부처를 포함한 관련 주체들 간의 이견과 대립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미디어교육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경숙 의원 안, 김희정 의원 안), 방송통신위원회(신경민 의원 안, 정필모 의원 안) 등 단일부처에 두는 안과, 최민희(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유은혜 의원 안(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공동)과 같이 복수의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에 대한 공방이 있어왔다.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는 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과 이해 및 비판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등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격교육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시행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중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미디어교육에 한정된 법률만으로는 이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최근의 미디어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학교 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교육의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미디어교육 정책은 다부처 간의 연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와 개인(아동, 청소년, 성인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상술한 법안 통과와 컨트롤타워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복된 사업과 프로그램 및 시설 구축에 드는 예산낭비를 막고, 미디어교육 사각지대를 찾아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초중고생 미디어교육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방안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배상률 외, 2020)에 이어 2021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배상률 외, 2021)를 수행하였다. 2020년도 조사에는 초등학생 총 2,724명

과 이들의 부모 총 2,530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도 조사에는 중고등학생 총 2,810명이 참여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별 세부 내용을 총 8개로 정리하고, 초등학생에게 해당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가장 관심이나 흥미가 가는 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중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초등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 경험율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육은 ‘온라인상에서의 예절(네티켓) 교육(79.1%)’, ‘온라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61.4%)’,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 교육(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 교육에 대한 경험률은 다른 7개 교육보다 낮은 22.9%에 머물렀다.

표 II-3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별 경험률, 관심/흥미 있는 교육, 필요/중요한 교육

(단위: %)

순 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부 내용	교육 경험 있음	초등학생		학부모
			관심/ 흥미	필요/ 중요	필요/ 중요
1	온라인상에서의 예절(네티켓) 교육	79.1	7.4	33.4	15.5
2	온라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61.4	7.2	34.1	21.4
3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 교육	54.7	13.5	6.1	26.8
4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 동영상 제작 교육	37.3	48.1	5.0	3.3
5	온라인상에서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 구분 교육	34.6	7.1	8.6	17.5
6	뉴스기사의 공정/정확 취재/보도 여부 판단 교육	27.7	4.8	6.0	8.0
7	방송국, 신문사, 영화사 등 미디어 산업에 관한 교육	26.2	6.2	3.7	1.7
8	미디어가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 교육	22.9	5.6	3.1	5.8

* 출처: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 (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161쪽.

초등학생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교육은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선택한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 동영상 제작 교육(4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 교육(13.5%)’이 2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다섯 가지 교육은 각각 4%대에서 7%대의 선택을 받았다. 관심도와 흥미성과는 별도로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34.1%)’과 ‘온라인상에서의 예절(네티켓) 교육(33.4%)’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다섯 개 교육은 3%대부터 8%대의 선택을 받았다. 미디어교육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능력에 해당하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 교육’은 교육 경험률(8위; 22.9%)과 초등학생의 관심도(8위; 5.6%)와 중요도(8위; 3.1%)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최근 3년 이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8가지 세부 내용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과 받았다면 학교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하여 어디에서 받았는지 응답토록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중학생 집단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밖보다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살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예절(네티켓)교육과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예 전화번호, 계정 비밀번호 등)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의 비판적·분석적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경험률은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미쳐 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현장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재개념화 및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II-4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_최근 3년 이내

(단위: 점,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	학교급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적 없음
		학교내	학교밖	
인터넷을 통해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비교, 분석하는 교육	중	40.5	12.0	49.7
	고	30.5	9.1	60.6
미디어가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교육	중	35.2	13.6	52.6
	고	32.0	10.8	58.0
뉴스/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취재되고 보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교육	중	34.4	13.4	53.7
	고	23.9	11.0	65.4
온라인상에서 제공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중	40.9	14.7	46.2
	고	26.9	12.5	61.3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 동영상 제작 교육	중	38.8	19.7	42.9
	고	21.4	16.4	63.3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중	62.7	15.0	25.0
	고	49.4	11.7	40.6
온라인상에서의 예절(네티켓)교육	중	73.5	14.6	15.9
	고	61.7	11.1	29.4
방송국, 신문사, 영화사, 포털업체 등 미디어 산업에 관한 교육	중	23.0	14.8	63.2
	고	18.5	12.2	69.6

* 출처: 배상률, 이창호, 김남두(2021년 12월 발행 예정).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제3장 전문가 설문조사

- 1. 계층적 분석(AHP)
- 2.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 3. 학교미디어교육 제반사항
- 4.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 센터의 지향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미디어교육 관련 학자, 미디어교육 강사,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 총 152명을 대상으로 「학교미디어교육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

본 연구책임자가 구축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설문조사위탁업체는 조사 url을 전문가의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제공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설문조사 문항들은 연구책임자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1)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을 포함한 관련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2)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매트릭스 기법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성비는 남녀가 각각 50%로 이루어졌으며, 연령대는 40대가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50대(30.3%)와 30대(25.0%)가 2,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현직 교사나 교사 출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3.3%로 나타났다. 교사 출신 응답자들 중 초등교사 비율은 40.7%, 고등학교 교사는 32.1%, 중학교 교사는 23.5%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속 기관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 교사는 17.8%, 중고등학교 교사

1) 본 조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NYPI-202111-HR-수시-006-04)을 받았음.

는 19.1%로 나타났다.

표 III-1 전문가 조사 참여자

	사례수 (명)	%
■ 전체 ■	152	100.0
성별		
남	76	50.0
여	76	50.0
연령		
20대 이하	2	1.3
30대	38	25.0
40대	61	40.1
50대	46	30.3
60대 이상	5	3.3
교사경험		
예	81	53.3
아니오	71	46.7
근무 학교급(교사출신)		
초등학교	33	40.7
중학교	19	23.5
고등학교	26	32.1
기타	3	3.7
소속기관		
정부부처	3	2.0
시도교육청	12	7.9
정부출연 공공기관	24	15.8
지자체 · 지자체 산하기관	8	5.3
초등학교	27	17.8
중학교	11	7.2
고등학교	18	11.8
대학교	25	16.4
민간단체	10	6.6
산업체(기업)	6	3.9
프리랜서	5	3.3
기타	3	2.0

1. 계층적 분석(AHP)

초중등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16가지 제도 및 정책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4대 영역(법제·정책, 거버넌스·인프라, 학교·가정, 미디어기업·단체)에 걸쳐 각각 4개의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제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초중등 재학생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학교·가정’, ‘법제·정책’, ‘거버넌스·인프라’, ‘미디어기업·단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및 가정이 교사 출신(0.373)과 비교사(0.348) 집단 모두에서 중요도 1위를 차지하였다.

표 III-2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구분	사례수	법제·정책	거버넌스·인프라	학교·가정	미디어기업·단체
전체	(152)	0.337	0.194	0.361	0.109
교사 출신	(81)	0.339	0.185	0.373	0.103
비교사	(71)	0.334	0.203	0.348	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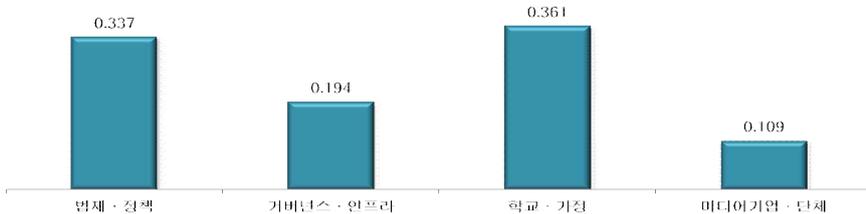


그림 III-1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상술한 4대 영역 중 2위를 차지한 ‘법제·정책’ 영역은 ①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②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③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 ④ ‘미디어교육법 제정’이란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중요도는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가 0.34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디어교육법 제정’이 0.267,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이 0.204,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이 0.189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 간 2, 3, 4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에 있어 교사출신 집단은 2위(0.261)로, 비교사 집단은 4위(0.138)로 해당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비교사 집단은 그 대신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교사 출신 집단보다 중요도를 더 높게 매겼다(교사 0.159 vs. 비교사 0.224).

표 III-3 법제·정책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구분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학교미디어교육 제도화	입시위주의 학업 부담 완화 정책	미디어교육법 제정
전체	0.189	0.340	0.204	0.267
교사 출신	0.159	0.327	0.261	0.253
비교사	0.224	0.356	0.138	0.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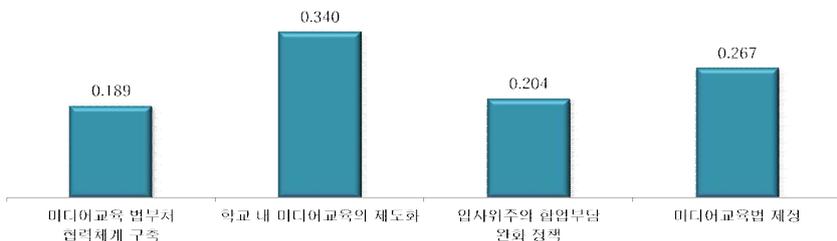


그림 III-2 법제·정책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상술한 4대 영역 중 중요도에 있어 3위를 차지한 ‘거버넌스·인프라’는 ①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②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③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④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학교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이 0.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 0.254,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0.228,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0.168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은 교사와 비교사 집단 모두 중요도면에서 압도적인 1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과 ‘통합지원 플랫폼/통합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 간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출신들은 온라인상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플랫폼(0.302)을 지역별 미디어교육 전담센터 구축(0.202)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비교사 집단은 오프라인 상 지역별 전담센터 구축(0.257)의 필요성을 온라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0.198)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4 거버넌스·인프라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구분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
전체	0.351	0.228	0.168	0.254
교사 출신	0.351	0.202	0.145	0.302
비교사	0.350	0.257	0.194	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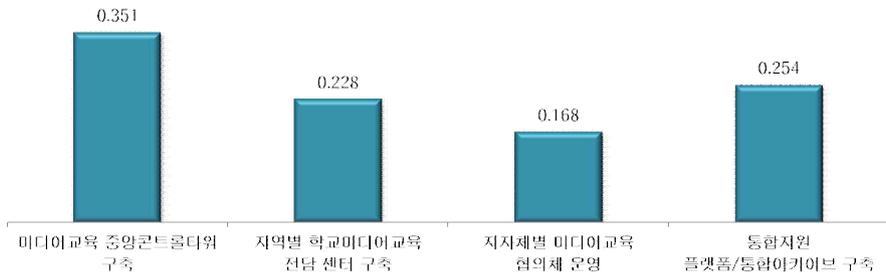


그림 III-3 거버넌스·인프라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상술한 4대 영역 중 중요도에 있어 1위를 차지한 ‘학교·가정’의 중분류는 ①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②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③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④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중재 및 개입’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가 0.44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256,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0.153,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중재/개입’ 0.146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 출신 집단과 비교사 집단 모두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 모두 항목별 중요도 수치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은 각각 0.460과 0.429로 해당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했는데 본 조사에 제시된 총 16개 항목 중 유일하게 두 집단 모두에서 0.4 이상의 중요도 점수를 받은 항목이다. 이는 2위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중요도 수치(교사 집단 0.235 vs. 비교사 집단 0.28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표 III-5 학교·가정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구분	학교 내 미디어 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중재/개입
전체	0.153	0.446	0.256	0.146
교사 출신	0.156	0.460	0.235	0.149
비교사	0.148	0.429	0.280	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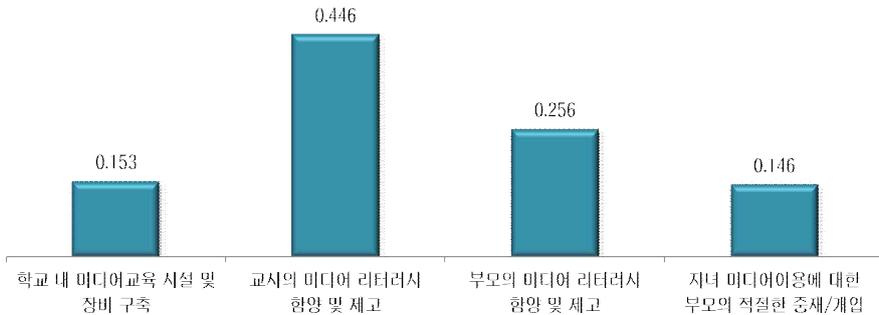


그림 III-4 학교·가정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상술한 4대 영역 중 중요도에 있어 최하위를 차지한 ‘미디어기업·단체’의 중분류는 ① ‘미디어기업/언론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②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관리’, ③ ‘지역 미디어(영상)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④ ‘민·관 협력체계 구축’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관리’가 0.3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디어기업/언론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0.275, ‘민·관 협력체계 구축’ 0.213, ‘지역 미디어(영상)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0.188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살핀 세 개의 대분류 지표인 ‘법제·정책’, ‘거버넌스·인프라’, ‘학교·가정’의 경우 각각의 중분류 지표 4개 항목 중 1위는 교사 출신 그룹

과 비교사 그룹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대분류 마지막 영역인 ‘미디어기업·단체’에 있어서 두 집단 간 1위가 달리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그룹에서는 ‘미디어기업/언론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의 중요도가 0.332로 1위를 차지했으나, 비교사 출신 그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관리’의 중요도가 0.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은 학교 내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 역량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을 선호하는 반면, 미디어교육 강사를 포함한 비교사 그룹은 현재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의 부족과 비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미디어(영상)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은 두 집단 모두 중요도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표 III-6 미디어기업·단체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구분	미디어기업/언론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관리	지역 미디어(영상)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체	0.275	0.324	0.188	0.213
교사 출신	0.332	0.286	0.177	0.204
비교사	0.209	0.367	0.201	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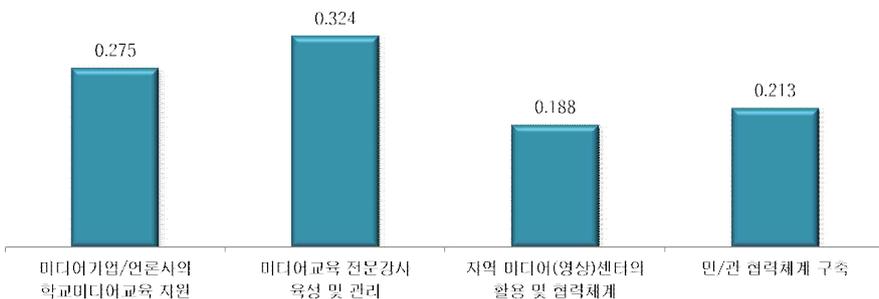


그림 III-5 미디어기업·단체의 중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AHP 결과

〈표 Ⅲ-7〉은 앞서 살핀 4대 영역의 중분류 16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최종 영향값은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 중요도〉로 16개 영향값의 총 합은 1이 된다. 초·중·고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16개 항목들 중 Top 5는 1위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2위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3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4위 ‘미디어교육법 제정’, 5위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7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

대분류		중분류		영향값	우선 순위
지표	중요도	항목	중요도		
법제·정책	0.337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0.189	0.0637	7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0.340	0.1146	2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	0.204	0.0685	5
		미디어교육법 제정	0.267	0.0897	4
거버넌스·인프라	0.194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0.351	0.0679	6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0.228	0.0441	11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0.168	0.0325	13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	0.254	0.0491	10
학교·가정	0.361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0.153	0.0551	8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446	0.1609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256	0.0924	3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중재/개입	0.146	0.0527	9
미디어 기업·단체	0.109	미디어기업/언론사의 미디어교육 지원	0.275	0.0299	14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관리	0.324	0.0352	12
		지역 미디어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0.188	0.0205	16
		민·관 협력체계 구축	0.213	0.0232	15

* 영향값 =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 중요도
 영향값의 총 합은 1임.

〈표 III-8〉은 교사 출신 응답자 집단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이다. 교사 출신 그룹의 top 5에는 〈표 III-7〉의 전체 응답자 조사결과의 최상위 5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다만, top 5 순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1위와 2위는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와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가 차지하였고, 전체 응답자 집계에서 5위를 차지한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이 교사 출신 그룹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다.

표 III-8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교사 출신 집단)

대분류		중분류		영향값	우선 순위
지표	중요도	항목	중요도		
법제·정책	0.339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0.159	0.0537	10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0.327	0.1109	2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	0.261	0.0886	3
		미디어교육법 제정	0.253	0.0857	5
거버넌스·인프라	0.185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0.351	0.0650	6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0.202	0.0374	11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0.145	0.0269	14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	0.302	0.0560	8
학교·가정	0.373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0.156	0.0582	7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460	0.1715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235	0.0876	4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중재/개입	0.149	0.0554	9
미디어 기업·단체	0.103	미디어기업/언론사의 미디어교육 지원	0.332	0.0343	12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관리	0.286	0.0295	13
		지역 미디어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0.177	0.0183	16
		민/관 협력체계 구축	0.204	0.0211	15

* 영향값 = 대분류 중요도 x 중분류 중요도
영향값의 총 합은 1임.

〈표 III-9〉는 비교사 집단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살핀 교사 출신 집단과 달리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5위로 진입한 대신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은 10위로 밀려났다. 두 집단 모두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와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1, 2위로 꼽았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이 교사집단에서는 중하위권, 비교사집단에서는 중위권을 차지했으며, ‘지역 미디어(영상)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표 III-9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표의 중요도 및 영향값 분석(비교사 집단)

대분류		중분류		영향값	우선 순위
지표	중요도	항목	중요도		
법제·정책	0.334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0.224	0.0748	5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0.356	0.1187	2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	0.138	0.0460	10
		미디어교육법 제정	0.282	0.0942	4
거버넌스·인프라	0.203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	0.350	0.0712	6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0.257	0.0523	7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0.194	0.0394	13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브 구축	0.198	0.0403	12
학교·가정	0.348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0.148	0.0517	8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429	0.1492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0.280	0.0973	3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중재/개입	0.143	0.0498	9
미디어 기업·단체	0.115	미디어기업/언론사의 미디어교육 지원	0.209	0.0241	15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관리	0.367	0.0422	11
		지역 미디어센터의 활용 및 협력체계	0.201	0.0231	16
		민/관 협력체계 구축	0.223	0.0257	14

* 영향값 =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 중요도

2.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을 들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총 16개의 정책과제를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각 정책의 중요도와 성취도 수준을 7점 척도 상에 표시토록 하였다. <표 III-10>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들이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 각 정책과제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중요도)을 갖고 있는지를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III-10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에 미칠 정책의 파급력(중요도) 평균값

항목	교사 출신	비교사	전체
	81	71	152
청소년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4.80	4.17	4.51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6.51	6.20	6.36
부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6.27	5.89	6.09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	5.20	4.97	5.09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	6.25	5.99	6.13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제재	5.89	4.94	5.45
미디어 과의존/중독 예방·대응 콘텐츠 개발·보급	5.73	5.27	5.51
미디어이용 및 미디어교육 관련 공모전 및 행사 개최	4.47	3.86	4.18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지원	5.40	5.21	5.31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5.89	5.58	5.74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5.98	5.35	5.68
유관부처 간 협업 및 조율	5.70	5.62	5.66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적 구축 및 정비	6.06	6.01	6.04
미디어 관련 제작·체험 프로그램 제공	5.26	4.87	5.08
미디어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및 활용	5.36	5.87	5.60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	5.84	5.89	5.86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요도 최상위는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평균 6.36)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평균 6.13), ‘부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평균 6.09), ‘학교미디어교육 제도화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평균 6.04)가 최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중요도에 있어서 bottom 3는 ‘공모전 및 행사 개최’(평균 4.18), ‘청소년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평균 4.51), ‘미디어 관련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평균 5.08)로 조사되었다.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는 7점 만점에 평균값 5.09로 전체 16개 정책과제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표 III-11〉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현재 이행수준(달성도)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16개 정책과제 모두 이행수준의 평균값이 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이행수준면에서 top 5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평균 4.39), ‘미디어 과의존/중독 예방 및 대응 콘텐츠 개발 및 보급’(평균 4.05), ‘미디어 관련 제작·체험 프로그램 제공’(평균 3.97), ‘관련 공모전 및 행사 개최’(평균 3.93),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평균 3.87)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책과제가 아닌 기기의 보급,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제작 활동 관련 정책과제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정책과제의 이행수준 bottom 3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평균 2.60),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평균 2.96),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평균 3.07)가 차지하였다.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는 평균값 3.39로 전체 16개 정책 과제 중 이행수준(달성도)에 있어 11위에 머물렀다.

표 III-11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이행수준(달성도) 평균값

	교사 출신	비교사	전체
	81	71	152
청소년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4.63	4.13	4.39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3.62	3.30	3.47
부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2.51	2.70	2.60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	3.46	3.31	3.39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	3.04	2.87	2.96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제재	3.42	3.56	3.49
미디어 과의존/중독 예방·대응 콘텐츠 개발·보급	4.25	3.83	4.05
미디어이용 및 미디어교육 관련 공모전 및 행사 개최	3.98	3.89	3.93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지원	3.68	3.62	3.65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3.96	3.66	3.82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3.94	3.79	3.87
유관부처 간 협업 및 조율	3.25	3.00	3.13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	3.25	2.86	3.07
미디어 관련 제작·체험 프로그램 제공	4.10	3.82	3.97
미디어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및 활용	3.67	3.48	3.58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	3.38	3.30	3.34

〈그림 III-6〉은 상술한 총 16개 정책 과제의 중요도와 실행 정도를 매트릭스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은 전문가 집단이 중요도에 있어서 상위 그룹에 속하나 실행 정도에 있어서 하위 그룹에 속하는 정책과제들이 포함된 곳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중점개선 영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 총 6개 정책과제가 중점개선 영역에 속해있다. ‘유지·강화 영역’은 중요도면에서 평균 이상이고 실행 수준도 평균 이상인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었다. 미디어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과 전문교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이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림 III-6>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설립 및 접근성 제고 정책과제가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모두 평균 이하인 '점진개선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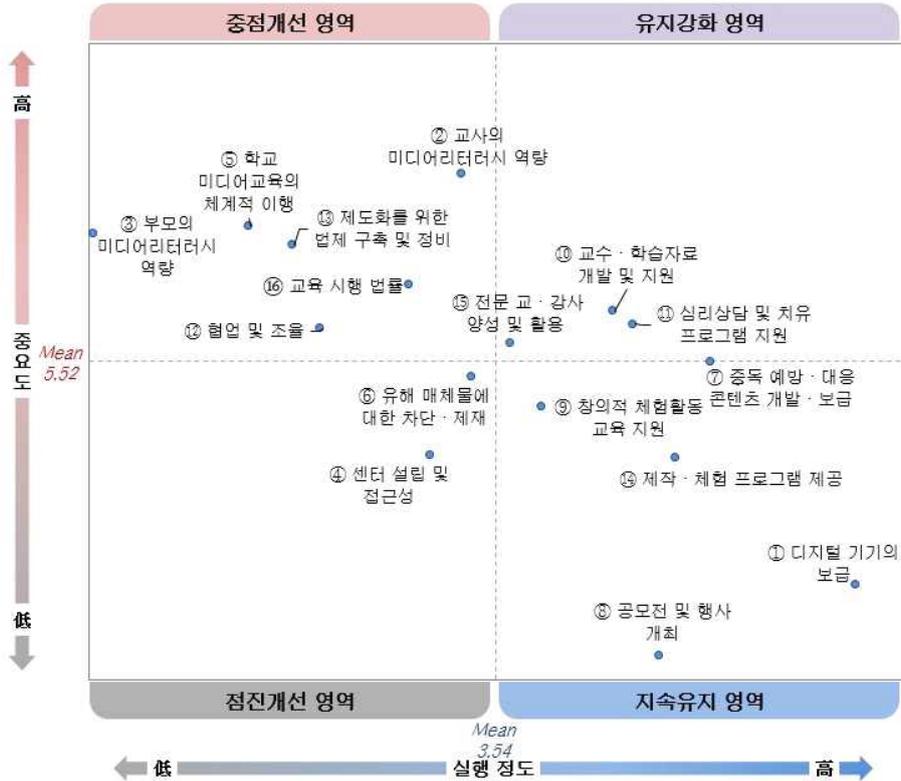


그림 III-6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정책과제 IPA(전체)

교사 출신 그룹만 별도로 중요도-성취도 조사(IPA) 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점개선 영역의 과제로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 및 제재가 포함되어 총 7개 정책과제로 늘어났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 및 제재가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와 함께 점진개선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III-7>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미디어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및 활용 정책 과제를 비교사 집단보다 덜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됐던 '교강사 양성 및 활용'이 <그림 III-8>에서는 지속유지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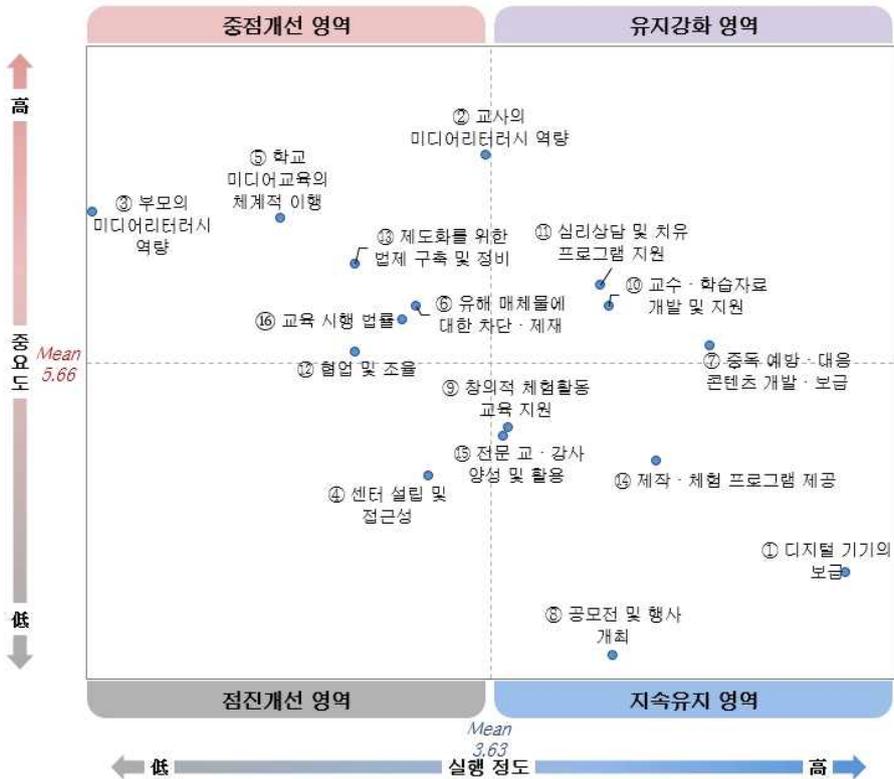


그림 III-7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정책과제 IPA(교사)

〈그림 III-8〉은 비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한 IPA 결과이다. 중점개선 영역으로 학교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 교사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등 총 6개 정책과제가 포함되었다. 교사 출신 집단과 마찬가지로 학교미디어 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은 중요도와 성취 수준에 있어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나 점진개선 영역에 포함되었다. 전문 교·강사 양성 및 활용이 교사집단과 달리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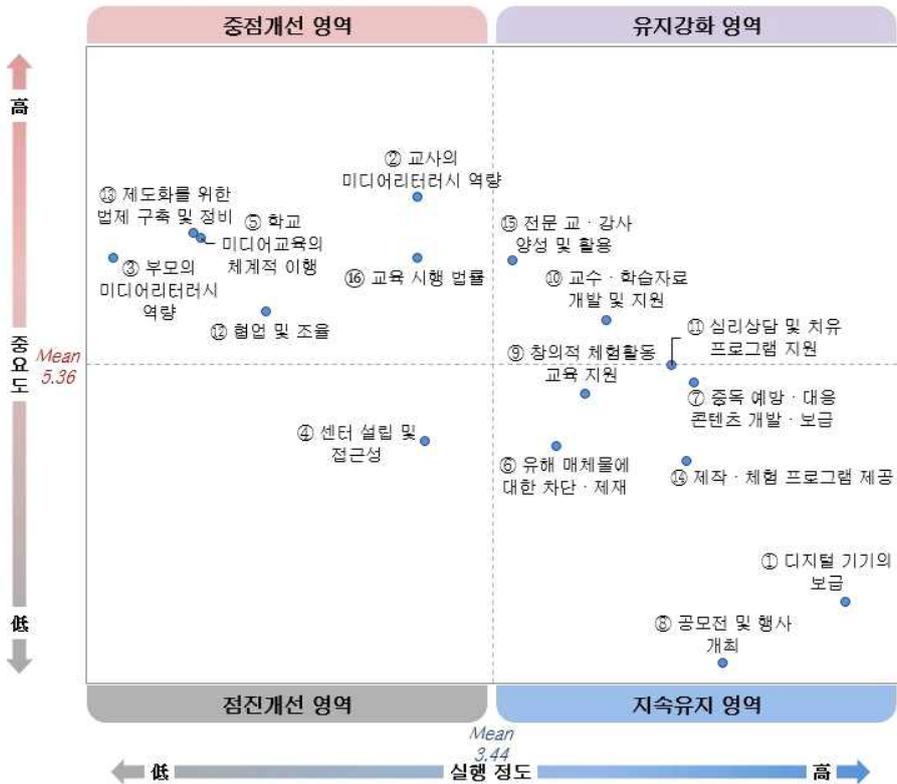


그림 III-8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정책과제 IPA(비교사)

3. 학교미디어교육 제반사항

미디어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전반적인 관심 수준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보다 학생들의 미디어교육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6.6%는 미디어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는데 동의하는 교사 출신 그룹의 비율이 비교사 그룹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사 그룹 61.7% vs. 비교사 그룹 50.7%). 반면, 교사들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4.2%에 머물렀다. 교사 출신 집단의 37.0%만이 미디어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는데 동의하였다.

표 III-12 미디어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동의 수준

집단	미디어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전체	3.9	12.5	27.0	32.9	23.7	16.4	56.6	3.60
교사 출신	3.7	9.9	24.7	33.3	28.4	13.6	61.7	3.73
비교사	4.2	15.5	29.6	32.4	18.3	19.7	50.7	3.45

표 III-13 미디어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동의 수준

집단	미디어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전체	4.6	22.4	38.8	25.7	8.6	27.0	34.2	3.11
교사 출신	4.9	25.9	32.1	27.2	9.9	30.9	37.0	3.11
비교사	4.2	18.3	46.5	23.9	7.0	22.5	31.0	3.11

학교 내에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교사들의 교수역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3%에 머물렀다.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 모두 5% 내외의 동의수준을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II-14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역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 동의 수준

집단	학교 내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역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전체	19.7	45.4	29.6	3.9	1.3	65.1	5.3	2.22
교사 출신	9.9	48.1	37.0	3.7	1.2	58.0	4.9	2.38
비교사	31.0	42.3	21.1	4.2	1.4	73.2	5.6	2.03

학교 내 미디어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다는데 동의 수준 역시 전체 응답자의 7.2%로 나타나 인적 자원의 확보와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 출신 그룹보다는 비교사 그룹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교사 4.9% vs. 비교사 9.9%).

표 III-15 학교미디어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다 동의 수준

평가기준	학교미디어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전체	22.4	53.3	17.1	5.3	2.0	75.7	7.2	2.11
교사 출신	18.5	60.5	16.0	2.5	2.5	79.0	4.9	2.10
비교사 출신	26.8	45.1	18.3	8.5	1.4	71.8	9.9	2.13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장비 인프라 역시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4%만이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졌다고 응답하였다. 10명 중 여섯 명은 해당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출신 집단의 경우 네 명 중 한 명 꼴로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비교사 집단은 7%만이 해당 항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장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동의 수준

집단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전체	15.8	44.1	23.7	13.8	2.6	59.9	16.4	2.43
교사 출신	14.8	42.0	18.5	19.8	4.9	56.8	24.7	2.58
비교사	16.9	46.5	29.6	7.0	0.0	63.4	7.0	2.27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나 교재가 잘 갖춰져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2%를 차지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1.3%로 인적 자원 및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에 대한 비동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II-17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교재가 잘 갖춰져 있다 동의 수준

평가기준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교재가 잘 갖춰져 있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전체	12.5	38.8	39.5	7.9	1.3	51.3	9.2	2.47
교사 출신	7.4	35.8	46.9	7.4	2.5	43.2	9.9	2.62
비교사	18.3	42.3	31.0	8.5	0.0	60.6	8.5	2.30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학교밖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각각의 평가를 10점 척도 상에 표시토록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

면,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 수준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학교밖 미디어교육은 10점 만점에 4.33점이었으나, 학교 내 미디어교육은 4.19로 조사되었다. 교사 출신 집단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4.49점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4.65점을 주었다. 비교사 집단은 교사 출신 집단에 비해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는 3.85점을 주었으며,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는 3.96점을 부여하였다.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은 것은 1순위 응답 기준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42.8%)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교사의 관심과 인식 부족(15.8%)과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인식의 부족(11.8%)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표 III-18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장애요인(1순위)

항목	교사 출신	비교사	전체
	81	71	152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 때문에	43.2	42.3	42.8
교사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18.5	12.7	15.8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8.6	15.5	11.8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체제/모델의 이해가 부족해서	8.6	9.9	9.2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3.7	11.3	7.2
관련 장비,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6.2	0.0	3.3
교사의 시간 부족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3.7	2.8	3.3
미디어교육 교재/교수학습지도서가 부족해서	2.5	1.4	2.0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1.2	1.4	1.3
학생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0.0	1.4	.7
기타	3.7	1.4	2.6
계	100.0	100.0	100.0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교사 출신 집단과 비교사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을 1위로 꼽았으나 그 뒤를 이은 2위부터 5위까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사 출신은 교사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함을 2위(18.5%)로 꼽았으나 비교사 집단은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부족을 2위(15.5%)로 들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쳤을 때, 앞서 살핀 1순위 응답 결과와 대동소이하였다. <표 III-19>에 나타났듯이, top 3는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57.9%), ‘교사의 관심과 인식 부족’(29.6%),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체제/모델의 이해 부족’(28.3%) 순이었다. 교사 출신 집단과 비교사 집단 모두 1위는 동일하였으나, 2위부터 5위까지는 순서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top 5에 포함된 항목들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9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장애요인(1+2순위)

항목	교사 출신	비교사	전체
	81	71	152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 때문에	58.0	57.7	57.9
교사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32.1	26.8	29.6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체제/모델의 이해가 부족해서	24.7	32.4	28.3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17.3	32.4	24.3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18.5	25.4	21.7
교사의 시간 부족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14.8	9.9	12.5
관련 장비,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12.3	2.8	7.9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9.9	5.6	7.9
미디어교육 교재/교수학습지도서가 부족해서	4.9	2.8	3.9
학생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1.2	1.4	1.3
기타	6.2	2.8	4.6
계	100.0	100.0	100.0

4.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지향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경기, 대구, 충북에 건립 추진 중인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대해 물었다. 다음의 12개의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동의수준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표 III-17>은 각 항목별 평균 점수를 집단 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 ①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 ②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 ③ 세 개 센터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학교미디어교육의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 있다
- ④ 각 센터는 해당 지자체 소속 학교 미디어교육 영역에 집중해야한다
- ⑤ 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 ⑥ 각 센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⑦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관 및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
- ⑧ 해당 지자체 소속 학생 및 교원은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⑨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 ⑩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⑪ 제작/창작 활동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 ⑫ 세 개의 센터 이외에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추가 설립될 필요 있다

표 III-20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정체성 및 지향점(평균비교)

항목	교사 출신	비교사	전체
	81	71	152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3.99	3.94	3.97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4.44	4.38	4.41
세 개 센터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학교미디어교육의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 있다	3.80	3.48	3.65
각 센터는 해당 지자체 소속 학교 미디어교육 영역에 집중해야한다	3.94	3.65	3.80
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3.76	3.80	3.80
각 센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23	4.04	4.14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관 및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	3.90	3.07	3.51
해당 지자체 소속 학생 및 교원은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4.40	4.06	4.24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4.54	4.42	4.49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49	4.48	4.49
제작/창작 활동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4.20	3.83	4.03
세 개의 센터 이외에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추가 설립될 필요 있다	4.12	4.00	4.07

①과 ② 항목은 지역에 있는 타 미디어센터나 영상센터가 운영 중인 가운데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되는데 있어 차별성 강화 또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분되는 타 센터와의 관계설정 중 전문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력체계 구축(평균 4.41)을 차별성 강화(평균 3.97)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과 ④는 세 개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거시적 지향점에 대한 문항이다. 세 개 센터 중 경기도는 북부권, 충북은 중부권, 대구는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권의 학교미디어교육을 총괄·관리·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사출신 그룹(3.80)의 동의수준이 비교사 그룹(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해당 지자체 소속 학교 미디어교육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 개의 센터가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교사 3.94 vs. 비교사 3.65).

⑤와 ⑥은 센터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지와 운영에 있어 센터 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 수준은 평균 3.80에 머물렀으나, 자율성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의 동의 수준은 4.14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사출신 그룹은 센터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중앙정부/지자체 관리 3.76 vs. 센터운영의 자율성 4.23).

⑦부터 ⑪까지 총 다섯 문항을 통해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항목은 ⑨번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⑩번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인력 확보’이다.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 모두 해당 항목에 가장 점수를 주었다. 가장 낮은 동의수준을 보인 항목은 ⑦ ‘대관 및 교육 사업’이다. 제작/창작 활동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수준도 4.03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당 항목에 대한 교사 출신 그룹의 동의수준이 4.20으로 비교사 그룹의 3.83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⑫번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이외에 추가로 타 지자체에 설립되는 것에 대한 문항이다. 전문가들의 추가 설립에 대한 동의 수준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부터 〈표 III-32〉는 상술한 12개 항목 각각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동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사 출신 집단이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90% 이상 차지하는 항목은 ②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표 III-22〉 참조), ⑧ 해당 지자체 소속 학생 및 교원은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표 III-28〉 참조), ⑨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표 III-29〉 참조), ⑩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III-30〉 참조)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집단이 교사 출신 집단 보다 모든 항목에 걸쳐 동의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90%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⑨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표 III-29〉 참조), ⑩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III-30〉 참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⑩번 항목인 센터 내 연구 인력 확보의 필요성은 동의수준이 98.6%로 비교사 출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⑨번과 ⑩번 항목이 총 12개 항목 중 교사 출신 그룹 및 비교사 그룹 모두 90%가 넘는 동의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지역의 타 미디어(영상)센터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2.0	7.9	14.5	42.8	32.9	9.9	75.7	3.97
교사 출신	3.7	6.2	13.6	40.7	35.8	9.9	76.5	3.99
비교사	0.0	9.9	15.5	45.1	29.6	9.9	74.6	3.94

표 III-22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지역의 타 미디어(영상)센터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1.3	1.3	5.3	38.8	53.3	2.6	92.1	4.41
교사 출신	2.5	1.2	1.2	39.5	55.6	3.7	95.1	4.44
비교사	0.0	1.4	9.9	38.0	50.7	1.4	88.7	4.38

표 III-23 세 개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각각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학교미디어교육의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 있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4.6	14.5	15.1	42.8	23.0	19.1	65.8	3.65
교사 출신	6.2	9.9	9.9	45.7	28.4	16.0	74.1	3.80
비교사	2.8	19.7	21.1	39.4	16.9	22.5	56.3	3.48

표 III-24 각 센터는 해당 지자체 소속 학교 미디어교육 영역에 집중해야한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7	9.2	22.4	44.7	23.0	9.9	67.8	3.80
교사 출신	1.2	7.4	17.3	44.4	29.6	8.6	74.1	3.94
비교사	0.0	11.3	28.2	45.1	15.5	11.3	60.6	3.65

표 III-25 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4.6	7.9	17.8	42.8	27.0	12.5	69.7	3.80
교사 출신	4.9	9.9	13.6	44.4	27.2	14.8	71.6	3.79
비교사	4.2	5.6	22.5	40.8	26.8	9.9	67.6	3.80

표 III-26 각 센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1.3	1.3	13.2	50.0	34.2	2.6	84.2	4.14
교사 출신	0.0	1.2	11.1	50.6	37.0	1.2	87.7	4.23
비교사	2.8	1.4	15.5	49.3	31.0	4.2	80.3	4.04

표 III-27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관 및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 (동의하지 않음)	④+⑤ (동의함)	
전체	6.6	13.8	21.7	37.5	20.4	20.4	57.9	3.51
교사 출신	3.7	6.2	18.5	39.5	32.1	9.9	71.6	3.90
비교사	9.9	22.5	25.4	35.2	7.0	32.4	42.3	3.07

표 III-28 해당 지자체 소속 학생 및 교원은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동 의하지 않음)	④+⑤(동 의함)	
전체	1.3	5.3	9.2	36.8	47.4	6.6	84.2	4.24
교사 출신	1.2	2.5	4.9	38.3	53.1	3.7	91.4	4.40
비교사	1.4	8.5	14.1	35.2	40.8	9.9	76.1	4.06

표 III-29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동 의하지 않음)	④+⑤(동 의함)	
전체	1.3	.7	3.9	36.2	57.9	2.0	94.1	4.49
교사 출신	2.5	1.2	2.5	27.2	66.7	3.7	93.8	4.54
비교사	0	0	5.6	46.5	47.9	0	94.4	4.42

표 III-30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동 의하지 않음)	④+⑤(동 의함)	
전체	.7	1.3	2.0	40.8	55.3	2.0	96.1	4.49
교사 출신	1.2	1.2	3.7	34.6	59.3	2.5	93.8	4.49
비교사	0	1.4	0	47.9	50.7	1.4	98.6	4.48

**표 III-31 센터는 제작/창작 활동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동 의하지 않음)	④+⑤(동 의함)	
전체	1.3	5.9	18.4	37.5	36.8	7.2	74.3	4.03
교사 출신	1.2	3.7	14.8	34.6	45.7	4.9	80.2	4.20
비교사	1.4	8.5	22.5	40.8	26.8	9.9	67.6	3.83

표 III-32 세 개의 센터 이외에 직속기관형 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추가 설립될 필요 있다

평가기준	동의수준							5점 평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 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②(동 의하지 않음)	④+⑤(동 의함)	
전체	3.9	6.6	11.2	35.5	42.8	10.5	78.3	4.07
교사 출신	3.7	8.6	8.6	29.6	49.4	12.3	79.0	4.12
비교사	4.2	4.2	14.1	42.3	35.2	8.5	77.5	4.00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기능들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토록 하였다. 1순위 응답 기준 top 5 기능은 1위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R&D) 기능’(17.1%), 2위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15.8%), 3위 ‘미디어 비평 수업’(13.8%), 4위 ‘교원 연수’(11.8%), 공동 5위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와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11.2%)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 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핵심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소 발견되었다. 교사 출신 그룹이 선정한 top 3로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 기능’(19.8%),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18.5%), 미디어 비평

수업(12.3%)이 포함되었다. 비교사 그룹의 1위 기능은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18.3%)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미디어 비평 수업’(15.5%),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 기능’(14.1%)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표 III-33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 기능(1순위)

중요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기능(1순위)	교사 출신	비교사 출신	전체
	81	71	152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R&D) 기능	19.8	14.1	17.1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	18.5	12.7	15.8
미디어 비평 수업	12.3	15.5	13.8
교원 연수	11.1	12.7	11.8
부모 대상 미디어교육	11.1	11.3	11.2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	4.9	18.3	11.2
미디어 제작 체험	7.4	8.5	7.9
자유학기제 연계 등 진로탐색교육	3.7	2.8	3.3
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9.9	5.9	1.4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0.0	2.8	1.3
디지털 기기 및 미디어 관련 장비 대여	1.2	0.0	0.7
계	100.0	100.0	100.0

〈표 III-34〉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전문가들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내용을 집계하여 정리한 것이다.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및 수업지도안 개발’(43.4%), ‘교원 연수’(37.5%), ‘부모 대상 미디어교육’(32.2%)이 top 3 기능으로 도출되었다. 그 뒤를 이어 ‘미디어 비평 수업’(30.9%),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30.9%),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R&D)’(30.3%)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교사 17.3% vs. 비교사 46.5%),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 기능(교사 37.0% vs. 비교사 22.5%), ‘미디어 제작 체험’(교사

32.1% vs. 비교사 18.3%) 등 일부 항목에서 두 그룹 간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교사 출신 그룹은 1위 ‘교원 연수’(40.7%), 2위 ‘미디어교육 연구개발’(37.0%), 3위 ‘학교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34.6%)을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주장하는 반면, 비교사 그룹은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53.5%),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46.5%), ‘부모 대상 미디어교육’(39.4%)을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장비 대여,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시설 대관, 영화 및 영상콘텐츠 상영, 경진대회/행사 개최 등은 센터의 핵심기능 조사에서 하위권이나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II-34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핵심 기능(1+2+3순위)

중요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기능 (1+2+3순위)	교사 출신	비교사 출신	전체
	81	71	152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	34.6	53.5	43.4
교원 연수	40.7	33.8	37.5
부모 대상 미디어교육	25.9	39.4	32.2
미디어 비평 수업	27.2	35.2	30.9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	17.3	46.5	30.9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R&D) 기능	37.0	22.5	30.3
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32.1	26.8	29.6
미디어 제작 체험	32.1	18.3	25.7
자유학기제 연계 등 진로탐색교육	27.2	14.4	21.1
디지털 기기 및 미디어 관련 장비 대여	16.0	1.4	9.3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7.4	5.6	6.6
시설 대관	2.5	2.8	2.6

○ —————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 1. IPA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2.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의견
- 3. 센터 유형별 중점기능에
대한 의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 이어 전문가를 대상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본 자문에 참여한 22명의 전문가는 크게 교사 그룹, 연구자 그룹, 센터장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그룹에는 현직 교사 또는 교사 출신으로 현재 교육청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 그룹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및 미디어교육 관련 대학 소속 교수 및 공공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 그룹은 지역 미디어 센터 대표 및 간부가 주축이 되었다(표 IV-1) 참조).

자문 내용은 ① 3장에서 상술한 중요도-성취도 조사(IPA)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개선 영역 관련한 의견, ②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의견, 그리고 ③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유형별 중점 기능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의견조사 주제인 IPA 결과에 대한 의견 사항은 3장에서 교사 출신 그룹과 비교사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다소 나타남에 따라 본 장에서는 교사 그룹(그룹 A), 연구자 그룹(그룹 B), 센터장 그룹(그룹 C)별 자문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후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의견 및 유형별 중점 기능에 대한 제안 내용은 자문 그룹의 구분 없이 주요 사항별로 정리하였다.

표 IV-1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리스트

번호	ID	소속 구분	
1	그룹 A (교사)	1	중등교사
2		2	중등교사
3		3	중등교사
4		4	교육청 장학사
5		5	교육청 연구사
6		6	교육청 연구사
7	그룹 B (연구자)	1	교수
8		2	대학 연구원
9		3	교수
10		4	교수
11		5	교수
12		6	대학 연구원
13		7	공공기관 연구원
14		8	공공기관 연구원
15		9	교수
16	그룹 C (센터장)	1	지역 센터장
17		2	지역 센터장
18		3	지역 센터장
19		4	미디어교육기관 실장
20		5	지역 센터장
21		6	지역 센터장
22		7	지역 센터 팀장

1. IPA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가 포함된 그룹 A, 교수와 연구원 소속 관계자가 포함된 그룹 B, 지역 미디어 센터장 및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관계자가 포함된 그룹 C의 의견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그룹 A (교사)

본 조사에 참여한 교사 그룹 전문가들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디지털 기기 보급이나 미디어 활용 교육이 아닌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당수 A그룹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공동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화를 위한 법적 구축 및 정비와 미디어교육 시행 법률이 중요합니다. (A-1)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마다 학생 거의 모두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학생 수보다 30퍼센트가 초과 공급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며 중요한 점은 학교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학생들의 미디어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2)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명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점개선 정책 과제로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 제정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려 해도 교육과정의 총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스스로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동력이 쉽게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법률적 토대를 기반

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교과교육 과정에 제대로 침투되도록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A-3)

법률적 제도 준비가 이뤄진 이후에는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소수의 교사가 필요성을 자각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늘리고 교과 시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법과 비교과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A-3)

모든 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으므로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체제(연수 등)가 필요하므로, 유관부처 간 미디어교육 관련 협업 및 조율이 선결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나 인성과 생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점개선 영역 내 항목 중 후순위로 밀립니다. (A-4)

학교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봅니다. 학교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현재 학교교육의 방침, 교육과정의 흐름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교과에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해 줘야 함은 물론,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총체적인 비전과 목적, 방향성, 교육내용요소,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과 연계지어서 이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은 법제로 규정하거나 강제한다고 하여 실행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구성원들의 이해와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5)

중점 개선 정책과제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항목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가 충분히 역량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마련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중략) 미디어 활용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로 미디어를 가르치는 것이 미디어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교수학습역량을 높이는 교사연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A-6)

2) 그룹 B (연구자)

그룹 B에 포함된 전문가 상당수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법제 개편과 기관 및 단체의 협업과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제고 노력을 포함한 학교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토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 단위의 미디어 리터러시 진흥법의 제정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은 부재하고 지자체별로 관심도가 달라 지자체(서울·경기·충남 교육청)에서 산발적으로 조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1)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천을 위해서 현재는 교육을 진행할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과 내용 영역 및 범위, 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한 체계화와 인식 공유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B-2)

학교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이행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개편중인 국가교육과정개편에서 총론과 각론에서 미디어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미디어

어교육이 초중등교육부터 실시되어, 장기적으로는 전체 인구가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교육개편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개편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3)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었을 때 효율성 및 즉시성이 담보된다고 보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추진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면 시행을 위한 인프라의 준비와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관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부처들의 협업 및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중복 투자 없이 인프라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부족한 영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B-4)

학교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이행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덧붙여 성적/입시 만능 교육 풍토에서 교사와 학교 운영자, 교육 당국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적/입시 지상주의에 물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교 당국자들에 의해 적용되지 않고, 외면 받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디어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량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즉,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B-5)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할 영역은 교사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미디어 교육 관련 기관 단체들의 협업과 조율이라고 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민주시민교육 항목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명시되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본격적인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교과목을 통해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B-6)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의무교육 형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법적·제도적 기반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도 중요하지만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미디어 교육사’자격 제도를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B-7)

3) 그룹 C (센터장)

그룹 C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그룹 B와 그룹 C의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학교현장의 미디어교육과 비교적 밀접하게 연관된 담당자들로서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과 함께 법제 구축 및 정비와 유관부처의 협업과 조율이란 측면을 함께 강조하였다.

⑫ 유관부처 간 미디어교육 관련 협업 및 조율 > ⑤ 학교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이행 > ②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 ⑬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 > ⑯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 제정 > ③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순으로 정책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관 부처 간의 합의된 미디어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 필요하며, 각 부처와 연관된 미디어교육 실행주체와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에 대한 협의와 조율도 필요합니다. (C-1)

어떤 부분의 교육이 필요할지 파악해서 교육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2)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주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의 주 활동 장소이

자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은 필수적입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와 교육 실험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정책적 과제들보다,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가 우선적이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만나는 밀접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설계하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이해 정도, 교육 실천 정도에 따라, 부처 간 중복된 사업을 하나로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공동체, 연구회가 교육청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3)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제 구축 및 정비 > 유관부처 간 미디어교육 관련 협업 및 조율 >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순으로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C-5)

미디어교육의 법제화 이슈가 때마다 올라오지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수순임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제화가 빠르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은 늘 중요한 사안이었고,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이 당장 지원되고 실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미디어교육 지원 단위와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교원 및 전문강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C-7)

2.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의견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당수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체계적 조율 없이 중복된 시설 투자에 대한 지적과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오프라인의 시설·공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보였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부 산하의 지역미디어센터에서 학교미디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학교미디어교육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몇몇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은 지역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영역 중 작은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위가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자체 소속 지역미디어센터에 요구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스펙트럼과 성과, 기대치도 예산과 인력에 비해 너무 큼니다. 다른 교육에 비해 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자율성이 적은 학교미디어교육이 학교의 요구에 맞추어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C-7)

기존 부처, 지자체, 민간등에서 설립한 지역미디어센터가 전국에 52개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디어센터도 지원기관과 운영주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중략) 세종/대전/충북센터처럼 대구/울산/포항과 같이 근거리에서 대규모센터가 밀집해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 충북, 경기외에도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타 지자체(교육청)별로 추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미디어강사가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도서지역의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고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2) 산발되어 있는 미디어 주관, 실행기관들이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로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센터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차질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면 다양각색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많아지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큰 시스템과 체계는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A-1)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 광역(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과 지자체 지원의 지역미디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능과 역할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초기에는 지역 미디어센터나 미디어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폐쇄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간 지역의 교육청 산하 기관과의 협력 사업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교육은 단순히 비판적 이해와 활용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성과 연관된 사회참여로 이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C-1)

미디어교육센터가 부재해서 학교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육현장에서의 미디어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며, 이 역시 성적지상주의, 입시 만능주의 교육 행태와 정책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센터 자체 건물 설립보다는 기존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미디어센터를 활용하거나 대학이 운영하는 방송국/미디어센터/미디어 관련 학과의 자원/인력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학교 미디어교육센터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B-5)

코로나 환경에서 오프라인 센터의 의미가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물리적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이 대세가 될 전망에서 물리적 공간에 과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으로 체계적인 온라인 미디어교육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4)

각 지역에 설립된 기존의 미디어센터와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상당수의 지적이다.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전문 인력이 제한적이고 중복된 투자 및 프로그램으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미디어교육 현장과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디어교육 현장 경험이 많은 운영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관 체계상 어려운 구조라면 학교미디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온 지역미디어센터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자문 또는 교육을 통해 미디어센터 운영진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C-7)

OO교육청은 'OO학교미디어교육센터 공간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간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디어교육센터의 설립 계획을 공개한바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통해 이 미디어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될지 짐작하기 어려웠으며, 이런 공간 구성이 미디어교육센터에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교육부의 '미디어교육센터'와 '다른 센터(기존 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설립한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C-6)

기존의 미디어교육 운영 단위들과 협력 없이 단독사업을 바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내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가까운 지역 왕래가 넘나들며 가능하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력풀에 대한 공유나 사업협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7)

현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창의융합센터,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시융합교육센터, 교육과정지원센터 등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환경, 프로그램, 비전 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도내에 있는 이러한 센터들과의 공간적, 예산적, 인력적 융합 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역시 수많은 센터들처럼 해당 시기의 필요성에

따라 유행처럼 설립되었다가,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센터로 전락할 수 있음에 관해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도내 다른 교육센터와의 협업지점, 미디어교육기관과의 협업지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현 구축 단계에서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A-5)

대구에도 3개의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성구미디어센터와 대구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구시민미디어센터입니다. 2022년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막고, 대구지역 미디어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들의 경우 사업의 대상과 방향을 바꾸는 등 체질개선을 위해 대안(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영화전문센터로 운영한다든지, 수성구센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취미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역시 네트워크 조직을 함께 구성하여 사업의 영역이 겹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2)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설립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기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하며 각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최대한 조율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하는 미디어센터들의 중복이 일어나는 일종의 ‘옥상가옥(屋上架屋)’현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이나 이용 수요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디어센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학교 미디어교육센터는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방식 대신 ‘직속 기관형’ 학교 미디어교육센터에 관련 예산 등을 집중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B-6)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또 하나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지역 영상센터라는 비판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능에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의 타 센터 및 기관들과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현실에서 지역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지역미디어센터 이용률이 크지 않아 수요자가 적는데 또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기능 중복과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주로 미디어 제작 체험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사업 모델과 동시에 독자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모델과 이용자보호 기능의 수행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7)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해 사전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어 있고 지역미디어센터도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중복 투자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러나 이미 지어진 센터의 교육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차별화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하고 영상제작 실습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미디어 이해와 책임 있는 미디어이용, 미디어이용에서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학교와의 연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3)

교육부에서 추가로 미디어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모델의 센터가 추진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기존 센터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 및 학교미디어교육에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센터가 아니라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공모를 통해 확정된 센터의 컨셉은 있지만 교육의 대상, 교육의 유형,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4)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지향점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3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센터의 핵심기능으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및 수업지도안 개발', '교원 연수'가 1순위 응답 기준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미디어활용이나 제작 교육에서 벗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본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교사, 강사들의 역량도 매우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있다면,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강사 질 관리나 재교육을 통해 우수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학교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A-1)

만약 학교미디어센터가 건립된다면 교사가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연구와 교사연수를 위한 미디어센터가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센터는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촬영과 편집위주의 미디어교육은 지역이 맡기고 학교는 생활인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2)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지만, 센터의 설립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프로그램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미디어교육 센터를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 등의 활용성을 고려하되, 센터와 가까이 있는 학교는 정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센터와의 유기적 소통을 위해서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해야 할 일 등을 순차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해야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A-3)

현재 교육과정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성취기준이 국어,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 등 몇몇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미디어교육이 어렵다는 점도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각 교과목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성취기준이 체계화, 위계화 되지 않은데다가, 해당 교과목의 목표를 더 우선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피상적으로만 다뤄지기 쉽습니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서 학교나 학급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체계적이고 깊이는 체험과 실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급(학교)단위의 체험학습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 외에도, 미디어를 통한 학생중심 사회참여형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6)

학교미디어교육은 시민 영역의 미디어교육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디어교육 지원 역할을 할 미디어교육 센터 역시 학교미디어교육에 초점을 맞춘 센터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방통위나 문체부, 지자체 산하 미디어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현재 지역 미디어센터의 경우 장비 지원 사업 및 장비 이용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현재의 모습으로는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미디어교육이 요구하는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및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의 역량 이 갖추어진 센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B-2)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지역별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와 지역 내 센터 등의 인프라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지역 내 가용 인프라가 많은 경우 협력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협력기관이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B-2)

현재 학교교육의 한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지점을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서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화 과정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설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A-5)

세 개 센터가 지역단위에 설립되므로, 그 지역 여건, 환경과 문화, 교육적 분위기나 수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것을 세 개 센터 설립 교육청 간에 공유하고, 공유된 자료에 기반하여 타 지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내고, 이에 기반하여 3개 센터에서 중점 기능들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5)

이미 건립예산이 확정된 센터의 경우도 온라인 기능을 구축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며, 추후에 각 지역별로 건물설립은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역의 센터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첨단기기 중심의 센터의 손실(감가상각비 등)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B-4)

이미 미디어환경은 별도의 센터를 통해야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손안의 미디어로 영상제작과 편집과 유통과 소비를 다 할 수 있기에 미디어교육 인프라로 센터를 갖추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4)

현 상황에서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라는 공간적-시각적 지도를 먼저 그리기보다는, 교육 행정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전담 부서 명확화, 담당 장학사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기획 운영 역량 고양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은 지역 차원에서 교육청-미디어센터-시민사회 등으로 구성하는 '지역 미디어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정책 개발 및 교육 연구, 평가, 아카이브, 예산, 부처 간 협력 관계망 구축 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3)

시도(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센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체험위주로 운영되어 미디어교육이 추구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발표·토론 공간, 진로교육을 위한 심화 공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4)

시설이나 장비 위주의 센터 구성보다는 교육 사업 개발과 프로그램 내용 구성, 교육 인력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은 학교 미디어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칭'OO 지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를 만들고 그 지역의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중략) 각 지역 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출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다 보니 현재 담당 장학사나 교사 등의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 변화의 흐름이 있는 듯 하지만 아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보여 학교 미디어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B-6)

3. 센터 유형별 중점 기능에 대한 의견

직속기관형과 협력기관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센터 중점 기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형 센터를 통해 학교미디어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협력기관형 센터는 기존의 타 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도서관과 연계한 방식으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사실상 많은 지자체 소속 학교에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과 연계하여 학교 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연계 활동을 발전시켜 규모와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협력기관형 센터의 지향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1) 직속기관형

직속기관형 센터의 중점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① 연령·학령별 미디어교육 실험모델의 확보, ② 교과와 특정 단원과 연계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③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예: 성취기준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④ 교사연구자 지원, ⑤ 연구, 실행, 평가의 환류 체계 확립, ⑥ 센터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⑦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다면적이고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기적으로 교육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장기 계획이나 생애주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서 공동된 부분과 특색 부분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처럼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원 연수, 교육프로그램 자료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세미나와 현장 토의 등의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부설기관이 워낙 많고 과업도 많은 상황이라서, 교원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이

핵심적인 기능이 되었으면 합니다. (A-1)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미디어교육 실험모델을 전국 단위에서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핵심 구성요소에 근거해 연령, 학령별 학교미디어교육 실험모델을 구체화하고 시범 미디어교육 학교에 적용, 성과 도출 및 모델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1)

직속기관형이 협력기관형에 비해 훨씬 기관이 가지는 위상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도 학교미디어교육에 집중하여 현장연구와 현장의 수요를 전폭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7)

학교 교육과정과 직결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교과와 특정 단원과 연계된 미디어 관련 활동을 직속기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학교 밀착형 미디어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3)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 제작 실습, 콘텐츠 생산 실습 등의 내용과 차별화된, 비판적 사고를 통한 미디어 이해와 책임있는 미디어이용, 미디어이용에서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학교 수업과 연계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3)

교육청 조직 안에 미디어교육센터를 두는 것이므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유연하면서도 촘촘하게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작 기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중심을 둔 것과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강사가 없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표현하고 그것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자원

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A-6)

교사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교원연수는 물론이고 학습동아리, 보다 전문적인 교사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연구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연구, 콘텐츠 제작, 교재 제작 등 다양할 것입니다. 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삼삼오오 센터로 모여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제작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과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센터는 연구와 실행, 평가가 환류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A-6)

센터의 핵심 기능은 학교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할 교사나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디어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미디어교육 사례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지역 내 학교에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 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각 지역학교의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이나 교육주체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가동/지원하여 우수 미디어교육 사례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2)

직속기관형 센터는 학교 미디어교육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미디어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교육 중개자(교사, 학부모) 교육에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B-4)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교육, 진로교육 등의 역할 수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A-4)

각 학교들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지와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형으로 만들어진다면, 교육관료들의 입김

과 보여주기식 행정 지상주의의 부정적 영향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직속기관형으로 운영한다면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평가는 관료나 일부 전문가들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적이고,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B-5)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보다는 청소년 미디어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관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지역의 미디어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서 지역과의 협력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C-1)

(2) 협력기관형

협력기관형 센터의 운영은 대상을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지 말고, 민-관-학-산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토록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이 센터의 효과적 운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 상당수는 협력기관형 센터의 역점 사업으로 체험 및 제작 프로그램, 강사지원,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당연히 협력기관형에 교육부의 공적자금이 투자되어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면 '직속기관형'의 사업 외에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대면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제작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C-6)

협력기관형의 경우, 기존의 학교미디어교육 협력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협력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해당 기관에 학교미디어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의 협업방식을 체계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면 예산대비 사업의 효능은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센터의 경우 이미 미디어 관련 기본 전문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설립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된 지 많게는 15년, 적게는 5년 정도의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기술을 수용하기에는 시설과 장비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산안배와 협력사업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다면 기존의 센터를 활용하는 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C-7)

미디어 콘텐츠의 범주가 많은 만큼, 협력기관들은 각 기관의 임무, 수행목표를 명확히 하며 특색 있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A-1)

미디어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문체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확보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는 교육에 중심을 두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A-3)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의 안과 밖, 학교경계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센터는 공공기관으로 국한돼 있지만, 향후에는 민-관-학-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해 미디어환경의 변화 방향이 점점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유연한 연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유연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A-6)

협력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기관이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기존 기관이 수행했던 역할이나 노하우, 자원을 어떻게 가동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 협력기관이 선정되고 나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학교미디어교육 협력 전담 담당자 그리고 협력기관의 전담 담당자를 선정하여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B-2)

기존 기관을 학교미디어교육과의 관련성에 기반을 두어 리모델링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어찌 보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도서관의 경우, 서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구비하면 인쇄미디어인 책과 디지털미디어를 함께 활용하여 각각의 미디어적 특성은 물론, 상호 간의 보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각의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유의한 점 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력기관형 중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기존 시도교육청에 존재하는 창의융합교육센터에 미디어교육의 기능을 첨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합니다. (A-5)

협력기관형 센터는 체험형 미디어교육, 제작중심 미디어교육, 학교밖청소년 미디어교육에 보다 역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B-4)

협력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학교미디어교육을 위한 강사지원, 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디어교육 공간 및 장비 대여 등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4)



제5장 정책제언

- 1. 기존 미디어센터와의 차별화
- 2. 기존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 3. 센터의 운영과 평가

1. 기존 미디어센터와의 차별화

관련 부처 산하 미디어센터와 민간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디어센터들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다. 이들 센터의 경우 미디어 제작 및 활용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과 학교미디어교육은 이들 센터 사업의 일부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스템과 현재 설립·운영 중인 미디어센터만으로는 학교현장에서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미디어센터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비판적 분석 능력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역량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학생중심 사회참여형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한 전문가의 주장은 곱씹어볼만하다.

3장에서 살펴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16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는 성취도면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아 중점개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교사 출신 전문가 그룹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역량이 충분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불과 5.3%에 머무른 반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재개념화부터 미디어교육 교수 역량 제고까지 교육 및 지원이 가능한 센터로서 기능을 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복투자나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사그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은 단순히 교사연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의 실천공동체(CoP)의 지원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모델 개발, 실행, 평가를 통한 개선의 환류체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중점을 두고 이루어나갈 과제이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지향해야 할 중점 기능 관련 12개 항목 중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별도의 전문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사들이 연구와 커리큘럼 개발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2. 기존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역에서 운영 중인 타 미디어센터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미디어교육에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전부터 방통위, 문체부 등 타 부처 산하 미디어센터와 민간 센터 등에서 오랜 시간 사회미디어교육과 학교미디어교육에 기여하며 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며 이 같은 시도는 불필요하다.

지역 내 미디어센터들이 비슷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저마다 제각각 제공한다면 센터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를뿐더러 지역 사회 내 센터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존의 타 미디어 센터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기능의 차별화와 교육 및 사업 대상의 구분이 지역협의체나 센터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학교 미디어교육센터의 설립이 센터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데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내 학생과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적·문화적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협력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현재 학교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로 기존의 지역 센터와 연계하여 미디어교육 강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방식을 확대한 형태이다. 현재는 협력기관형으로 공공기관에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학교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관-학-산의 연계로 확대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자원이 모인 협력체계는 조율만 잘 이루어진다면 교육 대상자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센터의 운영과 평가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센터들 중 지역 상황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유명무실한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역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과 교사들에게 외면 받는 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프라인의 센터 기능을 별 다른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온택트 문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보편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고 제한된 예산에 따른 효과적인

투자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추후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을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경기, 대구, 충북에 이미 설립중인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를 통해 인력 확보와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3). 설치 유형별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9조 2항(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에 의거 매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받아야 한다(종합수련시설 포털, 2021). 종합평가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선진화 및 고품질 청소년활동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안전한 청소년활동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종합수련시설 포털, 2021). 수련시설 종합평가영역은 ①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② 청소년 이용률 및 참여도, ③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④ 직원 확보율 및 시설환경, ⑤ 대외협력, ⑥ 정책협력 및 발전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미디어교육센터도 유형별로 직속기관형과 협력기관형의 유형별 구분에 따라 평가영역을 세부적으로 갖추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상황과 개선 사항을 파악토록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최하위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년 또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문 협력형 기관의 경우, 페널티를 통해 소기의 운영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있으며, 학교미디어교육에 상당한 기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이 같은 평가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이 같은 평가 및 컨설팅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진숙, 조재희, 정수영, & 박성우. (2017)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 연구.
- 교육부(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 시도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운영 현황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 미디어교육원(2021). 미디어교육원 안내도 <https://www.forme.or.kr/sub.cs?m=110>
-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이창호, 김남두(202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2021) 전국미디어센터 현황.
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2013).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 정순원(2018) 미디어교육법제 현황과 입법 방향. 교육법학연구, 30(3), 131-154.
- 청소년수련시설포털(2021.12.15). 시설평가 안내. http://youthnet.or.kr/?page_id=19

○ — 부 록

—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학교미디어교육 정책 방안 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고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요청 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미디어교육 정책 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귀하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각 영역별 정책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진솔한 평가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34조(통계중보자 등의 의무)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배상률 연구위원/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문의 전화 : 044-415-2220

이 메 일 : drbai@nypi.re.kr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미디어교육 정책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연령대, 소속기관 유형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본 설문조사에 사용한 용어 설명:

※ 미디어교육이란:

-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 미디어 환경의 올바른 이해;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 순기능에 대한 적극적 활용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토록 하는 교육

※ 미디어 리터러시란:

- 미디어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케 되는 지식과 기술
- 지식, 비평, 의사소통, 접근/활용, 구성/제작, 참여의 6대 구성요소로 분류되기도 함

○ 본 설문지의 <문1>부터 <문5>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도	1	3	5	7	9
용어	'비슷'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설명	비슷하게 중요 (equal)	약간 더 중요 (weak)	더욱 더 중요 (strong)	대단히 더 중요 (very strong)	절대적으로 중요 (absolute)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개의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예시> 예를 들어「휴대폰의 구입」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평가요소 '디자인'과 '가격'을 비교할 때, '가격'이 '디자인'에 비해 「휴대폰 구입」이라는 목표에 대단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도 '7' 란에 V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대 중요 (9)		매우 중요 (7)		중요 (5)		약간 중요 (3)		비슷하게 중요 (1)		약간 중요 (3)		중요 (5)		매우 중요 (7)		절대 중요 (9)		평가 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자인																			가격
															V				

[주] 2, 4, 6, 8의 척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접한 가장 가까운 숫자들의 중간에 V 표시하면 됩니다. 예컨대 '가격'이 '디자인' 보다 비해 대단히 더 중요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오른쪽 척도 7과 척도 9 사이의 작은 괄호 속에 V 표시하면 됩니다.

- AHP에서는 분석의 자료로 일관성 지수가 생성되며 응답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관성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유지된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값이 나올수록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 1) 다음은 초중등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각 대분류 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각 4대 영역(법제/정책, 거버넌스·인프라, 학교·가정, 미디어 기업·단체)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시어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위를 바탕으로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법제·정책	거버넌스·인프라	학교·가정	미디어기업·단체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 가									B 가									평가항목 (B)																				
	절	대	중	요	A	가	매	우	중	요	A	가	약	간	중	요	비	슷		하	게	중	요	B	가	약	간	중	요	B	가	매	우	중	요	B	가	절	대
법제-정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거버넌스·인프라			
법제-정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학교·가정			
법제-정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기업·단체			
거버넌스·인프라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학교·가정			
거버넌스·인프라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기업·단체			
학교·가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기업·단체			

문 2) 다음은 초·중등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제도·정책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 평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위를 바탕으로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미디어교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입시위주의 학업부담 완화 정책	미디어교육범 제정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 가									비 슷 하 게 중 요	B 가									평가항목 (B)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중 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 3) 다음은 초·중등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거버넌스인프라 구축 관련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 평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위를 바탕으로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미디어교육 중앙 컨트론타워 구축	지역별 학교미디어교육 전담 센터 구축	지자체별 미디어교육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플랫폼/통합아카이 브 구축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비 슷 하 게 중 요		B가 약 간 중 요		B가 중 요		B가 매 우 중 요		B가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 4) 다음은 초중등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학교 및 가정 관련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 평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위를 바탕으로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학교 내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제고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중재/개입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옆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비 슷 하 게 중 요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항목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 5) 다음은 초중등 재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기업 및 기관/단체 관련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 평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위를 바탕으로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 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미디어기업· 언론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관리	지역 미디어(영상)센터 의 활용 및 협력체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비 슷 하 게 중 요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항목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 6)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을 들이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각 정책과제별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에 미칠 파급력(중요도)과 지금까지의 정책이행 수준(달성도/실행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선택해 주세요. 숫자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 본 문항의 좌우 양쪽에 모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도(이행의 파급력)							설문 내용	성취도(이행 수준의 달성도/실행정도)						
낮음 ← → 높음								낮음 ← →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소년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교사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및 접근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학교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이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유해 매체에 대한 차단·제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스마트폰, 게임 등 미디어 과의존 /중독 예방·대응 콘텐츠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올바른 미디어이용 및 미디어교육 관련 공모전 및 행사 개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유관부처 간 미디어 이용 및 미디어교육 관련 협업 및 조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적 구축 및 정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미디어 관련 제작·체험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미디어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및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학교미디어교육 시행 법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교육부는 2020년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지원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충북, 경기, 대구 교육청이 선정되어 해당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각 교육청별 사업비 및 특징은 2021년 3월 기준 교육부 작성한 표 참조). 해당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정체성 및 지향점에 대한 각 문항 별 귀하의 동의수준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시도	총사업비(특교예산)	특징
경기	000억원(70억원)	○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충북	000억원(35억원)	○ 사회적 감성능력 형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대구	000억원(35억원)	○ 예술 기반 창작 활동 연계 미디어교육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의 기존 타 미디어(영상)센터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세 개 센터가 각각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학교미디어교육의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각 센터는 해당 지자체 소속 학교 미디어교육 영역에 집중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각 센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운영비 확보를 위한 대관 및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해당 지자체 소속 학생 및 교원은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센터에서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센터 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제작·창작 활동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세 개의 센터 이외에 직속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추가 설립될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8) 다음의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기능들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순서대로 세 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개발(R&D) 기능 ② 미디어 제작 체험 ③ 영화 및 영상콘텐츠 관람 시설
 ④ 교원 연수 ⑤ 미디어교육 강사 육성 및 관리 ⑥ 디지털 기기 및 미디어 관련 장비 대여
 ⑦ 시설 대관 ⑧ 미디어 프로젝트 경진대회/행사 개최 ⑨ 부모 대상 미디어교육
 ⑩ 학교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수업지도안 개발 ⑪ 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⑫ 자유학기제 연계 등 진로탐색교육 ⑬ 미디어 비평 수업 ⑭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문 9) 다음은 학교미디어교육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 별 귀하의 동의수준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초등생 대상 미디어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중·고등학생 대상 미디어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초등학생의 경우, 미디어교육이 교과연계형 방식보다 별도의 독립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시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중·고등학생의 경우, 미디어교육이 교과연계형 방식보다 별도의 독립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시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디어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①	②	③	④	⑤
7) 미디어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내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역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미디어교육을 위한 학교 내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미디어교육을 위한 학교 밖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교재가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미디어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점(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부터 10점(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2-----3-----4-----5-----6-----7-----8-----9-----10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문 1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점(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부터 10점(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2-----3-----4-----5-----6-----7-----8-----9-----10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문 12) 우리나라 학교미디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관련 장비,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 ②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 때문에
- ③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 ④ 교사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 ⑤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 ⑥ 학생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서
- ⑦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 ⑧ 교사의 시간 부족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 ⑨ 미디어교육 교재/교수학습지도서가 부족해서
- ⑩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체제/모델의 이해가 부족해서
- ⑪ 기타 (직접 기입: _____)

배경질문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배경질문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배경질문 3) 귀하는 현재 초중고 교사이거나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배경질문 4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배경질문 5번으로 이동)

배경질문 4) 귀하가 교사로 근무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근무했었던 학교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

배경질문 5) 귀하의 현재 소속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부부처 ② 시도교육청 ③ 정부출연 공공기관 ④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⑤ 초등학교 ⑥ 중학교 ⑦ 고등학교 ⑧ 대학교
⑨ 민간단체 ⑩ 산업체(기업) ⑪ 프리랜서 ⑫ 기타 (_____)

배경질문 6) 귀하가 평소 하시는 업무는 청소년 분야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습니까?

(※ 청소년 기본법은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의 연령대로 규정하고 있음)

- ① 전혀 연관 없음 ② 연관 없음 ③ 연관 있음 ④ 매우 연관 있음

배경질문 7) 귀하가 평소 하시는 업무는 미디어교육 분야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연관 없음 ② 연관 없음 ③ 연관 있음 ④ 매우 연관 있음

연구보고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인 쇄 2021년 12월 30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연구보고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